

Do you think much about death? Recent events such as the freak and tragic death of cricketer, Phillip Hughes, and the spate of deaths on Victorian roads in recent weeks have certainly made it news! How do you feel when you lose a loved one through death? Do you fear death? It tends to be a topic which is avoided in our society. American film-maker and actor, Woody Allen, summed up humanity's uneasiness with death when he said, "It's not that I'm afraid to die, I just don't want to be there when it happens".

여러분은 죽음에 관하여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경악스럽고 비극적인 크리켓선수, 필립 휴즈의 죽음과 최근 몇주간에 발생한 빅토리아 로드에서의 수많은 죽음과 같은 최근의 사건들은 틀림없이 뉴스거리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을 통하여 잃었을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우리 사회가 피하고자 하는 화제가 된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영화 감독이자 배우인 우디 알렌은 "나는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은 아니라 단지 그 죽음이 발생할때 그곳에 있고 싶지 않을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죽음에 대한 인간의 거부함을 요약했었습니다.

In the passage we have just read from the letter to the Hebrews, the writer refers to "those who all their lives were held in slavery by their fear of death" (2.15). This is a fear that might relate both to the process of dying and to the state of being dead (no longer alive). And so there are a number of aspects to this fear including the fear of the loss of control (in the sense that, when you are dying, you have almost no control; there is an incredible vulnerability – and that's scary), the fear of incompleteness and failure, the fear of separation from loved ones and the fear of the unknown (in the sense that we don't know what death is really like – no one has come back to tell us). This mystery called "death" is therefore a source of dread to be avoided, a master to which we are enslaved and an enemy at which we rage.

우리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의 본문에서는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2:15)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는 과정과 죽은 상태 (더이상 살아있지 않은) 둘다에 관련된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통제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이 죽을 때, 거의 아무 것도 컨트롤할수 없다는 생각;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의 연약함 – 그것은 무서운 것이지요), 불완성됨과 실패,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분리로 인한 두려움, 또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실제로 죽음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는 생각- 아무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을 포함한 이 두려움에 관한 수많은 관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불리는 수수께끼는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큰 공포의 원인이자 우리가 종 노릇하는 주인이고 또한 우리를 격분하게하는 원수인 것입니다.

In actual fact, people are right to fear death because it represents God's judgment against sin and it also represents the devil's power over us. It represents an eternity separated from God's presence and love, enduring an existence with nothing good at all in it. But the writer of the letter to the Hebrews tells us that there is good news – and that good news is that Jesus has destroyed "him who holds the power of death – that is, the devil" – and has freed "those who all their lives were held in slavery by their fear of death" (2. 14-15).

실제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또한 우리를 정복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또한 그것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를 견디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으로 부터 분리된 영원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작가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좋은 소식이란 예수님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파멸하셨으며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2:14-15) 자유케 하신 것을 말합니다.

How has Jesus achieved that? Well, the clue is in the name "Jesus". Indeed, "His name is Jesus". That is his human name. "But we see Jesus" it says in v. 9. The key is in the Son of God becoming a human being – "Jesus of Nazareth". In 1: 1 - 2: 4 of the letter to the Hebrews, the writer focuses on the exalted status of the Son of God – and demonstrates his superiority over the angels. But as we come to v. 5 of chapter 2, the focus shifts to the Son of God's incarnation and death. The "man" or "son of man" mentioned in Psalm 8: 4-6 (quoted in 2: 6-8) is none other than Jesus, the incarnate

Son of God. Christ humbled himself, took our human nature and so “for a little while was made lower than the angels” (2: 7, 9 RSV). For a brief time, the Christ, the Son of God, became a human being, a baby, a child, a man. This Jesus lived among us, suffered alongside us and died for us. 어떻게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까? 글썄요 그 단서는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에 있습니다. 실로 “그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간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보니”라고 9 절은 말합니다. 열쇠는 인간이 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1:1-2:4 절을 보면, 그 작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높임 받으신 지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지휘하는 그의 의기양양한 탁월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 장 5 절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인간으로의 승화와 그의 죽음으로 중심이 전환됩니다. 시편 8:4-6 절 (2:6-8 절에서 인용됨) 에서 언급된 그 “사람” 혹은 “인자”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된, 예수님외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인간의 천성을 받아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다고”(2:7,9 )합니다. 잠깐 동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었고, 아기가 되었고, 아이가 되었고 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셨다가, 우리와 더불어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Why would the glorious and powerful Son of God submit to such humiliation? He did it “so that by the grace of God he might taste death for everyone” (2: 9). The Son in his divine nature could not die. He had to be fully human in order to die. He took our human nature that he might suffer a human death and die as the sin-bearer on our behalf, that he might in his own body take the punishment of God’s wrath against our sin. As the angel said to Joseph,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Matthew 1: 21). Such grace is too wonderful for us to understand. To think that the divine Son of God should submit to the process of human birth (and in such lowly circumstances) – that is a miracle! And then to consider that he did so in order that he might die for sinners like you and me – that is the miracle of all miracles.

왜 그토록 영광스럽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한 굴욕을 감수해야 했을까요?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고자” (2:9)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신성을 가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죽을 수 없었겠지요. 그는 그렇게 죽기 위해서는 완전히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진 자로서 인간의 죽음을 겪고 죽어야 했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처벌을 그의 몸으로 받고자 인간의 천성으로 와야 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말했을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21). 이런 은혜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도 훌륭한 것입니다. 성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출생 (그것도 그런 초라한 환경에서)을 감수해야 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런 다음 그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그것은 모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Indeed, Jesus, “the author of” our “salvation”, not only shared our humanity but he was made “perfect through suffering” (2: 10). That doesn’t mean that he was gradually getting rid of defects. It means that as he lived a life facing the sufferings, trials and pain that led to his death on the cross, he was gradually fulfilling the perfect righteousness that he had to have in order to save us. It was his full obedience to his mission of death on the cross that “perfected” him and qualified him to be our Saviour. The point is this – if the Son of God had gone from incarnation to the cross without a life of temptation and pain to test his righteousness and love, then he would not be a suitable Saviour for sinful and fallen human beings. His suffering not only absorbed the wrath of God. It also fulfilled his true humanity and made him able to call us brothers and sisters.

실제로 우리의 “구원”의 “작가”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속성만을 나눈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2:10)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의 단점들을 서서히 제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고난과 시험과 고통을 직면한 인생을 살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져야 할 완전한 의를 점차적으로 실현해 갔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를 “완전하게”하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미션의 완벽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이점은 -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의로움과 사랑을 시험하는 어떤 유혹과 고통이 없었더라면, 그는 죄악이 가득하고 타락한 인간을 위한 구세주로 적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고난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힌 것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인간성을 실현함으로써 그가 우리를 형제 자매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Satan or the devil's main interest or goal is to damn us. His power to damn lies in the sins that he inspires and the lies that he tells. The only thing that damns anybody is unforgiven sin. The one lethal weapon that Satan has is the power to deceive us. His chief lie is that self-centeredness is more to be desired than Christ-centredness, and that sin is preferable to righteousness or holiness. Jesus came to take that weapon out of Satan's hand. To do this, Jesus took our sins on himself and suffered for them. When that happened, they could be used no more by the devil to destroy us. Taunt us? Yes. Mock us? Yes. But damn us? No! Jesus bore the curse in our place. By his death he obtained the pardon of our sin and the removal of our guilt. Try as he will, Satan cannot destroy us. The wrath of God is removed. His mercy is our shield. To accomplish this deliverance, Christ had to take on human nature, become fully man, because without it, he could not experience death. Only the death of the Son of God could destroy the one who had the power of death. When Jesus Christ died for sins, he took from the devil his one lethal weapon: unforgiven sin. Freedom from fear was the aim of Christ in doing this. When the fear of death is destroyed by an act of self-sacrificing love, the bondage to self-preservation is broken. We are freed to love like Jesus Christ, even at the cost of our own lives. A Christian's fear of death no longer paralyzes and enslaves because Jesus has disabled the one who holds the power of death, the devil. And Jesus has done this not for the benefit of angels but for those who inherit the promises of Abraham. Being Abraham's descendant means that Jesus is truly human, but it also means that he fulfils God's promise to Abraham that through his descendant all people would be blessed (Genesis 12: 1-3).

사단이나 악마의 주요 관심사와 목표는 우리를 파멸하는 것입니다. 그의 파멸의 권세는 그가 말하는 거짓말과 그가 야기시키는 죄들 가운데 존재합니다. 누구를 저주할 수 유일한 것이라곤 용서받지 못한 죄입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한가지 치명적인 무기는 우리를 속이는 힘입니다. 그의 주된 거짓말은 자기 중심적 태도가 하나님 중심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하고, 죄는 의로움이나 거룩함보다 더 선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손에서 그 무기를 빼앗고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고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행해졌을 때, 우리의 죄는 더이상 사단이 우리를 파괴하도록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악당을 퍼붓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 아니지요!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그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는 우리 죄의 용서와 우리의 죄책감의 제거를 획득했습니다. 사단이 무엇을 시도하더라도 우리를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제거 되었습니다. 그의 자비는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이 구출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인간의 성품을 입고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고는 그가 죽음을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만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파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사단으로부터 그의 한가지 치명적인 무기: 용서받지 못한 죄를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으로 부터의 자유는 예수님이 그것을 함으로써 얻고자 한 목표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 희생적이 사랑의 행위와 자기 보존의 끈이 끊어짐으로 인해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희생을 치루더라도 예수님 처럼 사랑하도록 자유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을 무능하게 함으로써 크리스천들의 죽음에 대한 공포는 더이상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거나 노예로 만들지 못합니다.

The Greek word translated "destroy" in 2:14 means "to render inoperative or ineffective". But, understandably, the question may be asked: "If, at the cross of Christ, the devil was rendered impotent, why is he still so very much alive in the world, and in what sense are we free from his aggressive power? Surely he is still far from being "destroyed" in any final sense? Does the devil still not, as Peter says in his first letter, prowling "around like a roaring lion looking for someone to devour" (1 Peter 5: 8)? Christ's victorious death robbed the devil of his earlier power and stranglehold over human beings. Ultimately the devil will be destroyed completely in the "lake of fire" (Revelation 20: 10), but until then we need, as Christians, to recognize that his power is a limited power.

그리스 단어 "파괴하다"는 본문 2 장 14 절에서 "무능하고 쓸모없게 만들다"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만일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무력하게 되었다면, 왜

아직 이 세상에 그토록 살아 돌아다니며,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 공격적인 권세로 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일까?”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단은 마지막까지 아직도 많이 “파괴 되어져야”합니까? 바울이 그의 첫번째 편지에서 말한것 처럼, 여전히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베드로전서 5:8) 찾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의 승리의 죽음이 사단으로 부터 그의 이른 세대의 인류를 지배하던 힘과 영향력을 강탈하지 않았나요? 궁극적으로 사단은 “불의 못”(요한계시록 20:10)에서 완전히 파멸될 것이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크리스천으로서 사단의 권세는 제한된 권세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There was a postman who, one day, had to deliver a letter to a house that he had never visited before. He opened the gate only to find himself face to face with the largest and most vicious dog he had ever seen! It barked furiously and then leapt towards him. He stood there helpless and terrified until, to his great relief, he saw that the huge, angry dog was chained to a large stake set in concrete. The chain was quite long and the dog had considerable freedom, but not enough to reach the postman. He saw that he could easily deliver the letter and did so. From then on, whenever he had to visit that house in the course of his work, he took little notice of the aggressive dog. Rather he always kept his eye on the strong stake! At the cross, Satan, the devil, the enemy of souls, was made impotent, limited and chained. When he has “bitten” us and tempted and deceived us into sin, it is usually because we have been far too near. We need to learn not to invite temptation to sin, to expose ourselves unnecessarily to such temptations. “Flee the evil desires of youth” is Paul’s advice to Timothy (2Timothy 2: 22) and to the Corinthians it is to “flee from sexual immorality” (1 Corinthians 6: 18).

옛날에 어떤 우체부가 있었는데, 그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집에 편지를 배달해야 했습니다. 그가 대문을 열었을때, 여지껏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가장 크고 사나운 개와 대면해야 했습니다. 그 개는 맹렬히 짖더니 그에게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 거대하고 성난 개가 콘크리트에 박힌 커다란 기둥에 사슬로 묶여 있는 것을 보고 완전히 안도하기 전까지 그는 무력하게 공포에 질린채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 사슬은 꽤 길어서 그 개가 어느 정도의 자유를 가졌었지만 그 우체부에게 다가가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쉽게 편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우체부는 그의 일들을 수행하려고 그 집에 갈때 마다, 그 사나운 개를 전혀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늘 그 튼튼한 기둥을 잘 살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단, 그 마귀, 영적 원수들은 쓸모없게 되었고, 제한되어 있고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물었을 때”, 유혹할때, 우리를 죄를 짓게 끌고 갈때는, 주로 우리가 그들에게 너무 가까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유혹에 불필요하게 우리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죄의 유혹을 초대하지 않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디모데후서 2:22) 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충고이고, “음행을 피하라”(고린도전서 6:18)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Not only has Jesus done all this for us, but he is able, too, to help us in the face of the struggles and temptations of daily living: “Because he himself suffered when he was tempted, he is able to help those who are being tempted” (2: 18). The one who endured the world’s greatest suffering, the bearing of human sin and separation from God, and yet triumphed, the “one who has been tempted in every way, just as we are – yet was without sin” (Hebrews 4: 15) is certainly able to sympathize with us and help anyone who turns to him. Our Saviour and Lord is fully human and fully God. He is seated now at the right hand of God. He is able to help us in our moment of fierce temptation. He is able to enter deeply and sympathetically into your needs. He is able for all time to save those who seek (Hebrews 7: 25). He is able to do far more for us than we would ever dare to pray about or even think about. He is able to keep us from spiritual collapse and present us to the eternal God as his redeemed children. However great the pressures, the New Testament assurance that he is “able” should encourage us to deeper trust in Jesus and renewed confidence in his unfailing ability not only to see us through the troubles, but make us conquerors over them. Thanks be to God for his indescribable gift of his Son, Jesus to be our Saviour and Lord.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은 이것만이 아니라, 그는 또한 날마다 생활 속의 어려움들과 유혹을 직면하는 우리를 도울수 있는 분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2:18). 세상에서 가장 엄청난 고난을 겪으신 분, 인간의 죄를 지고 하나님으로

부터 분리 되시고, 그리고 승리를 거두신 분,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신” (히브리서 4:15) 분이 틀림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오는 모든 이들을 도울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자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는 맹혹한 유혹의 우리의 그 순간에 우리를 돕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는 여러분의 필요시에 깊게 긍휼한 맘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는 언제나 그를 찾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25). 그는 우리가 감히 기도할 수 있는 것보다,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영적 무너짐으로 부터 구할 수 있고, 그의 돌아온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그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그가 우리의 문제들의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지켜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정복하게 만드시는 실수 없으신 그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믿음을 가지도록 용기를 얻고, 우리가 자신감을 회복해야 한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강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이자 주님이신 예수님께 감사를 올립시다.

Amen

*Prepared by Rev. Grant Lawry, Canterbury Presbyterian church, Canterbury, Melbourne, Australia for use of the Canterbury congregation.*